

궁 안의 연꽃 숙빈 최씨 연극공연 성료

정읍문화원 연지아트홀서 극작가 백소연 연출로 숙빈 최씨 삶 그려
일반인 연극단원으로 구성 영조 어머니 테마로 문화적 가치도 표출

시인이기도 한 극작가 백소연 씨가 연출한 '궁 안에 연꽃 숙빈 최씨' 연극 공연이 지난 9일 전북 정읍문화원 연지아트홀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이 연극은 1670년(숙종2년)을 기점으로 영조 등극까지의 숙빈 최씨의 삶을 그린 연극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문화원에서는 문화재 발굴 계획 하에 매년 역사에 족적을 남기신 분들의 숨은 발자취를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극은 연극단원들 모두 특정된 전문인이 아니라 일상에서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감동을 느끼게 했다.

'궁 안의 연꽃 숙빈 최씨'는 극작가인 백소연 연출가가 역사적 사실을 근거 하에 창작된 조선 역사 중 영조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테마(Theme)로 빛어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시킨 연극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최씨는 이번 연극을 이렇게 설명 한다. 숙빈 최씨에 대한 자료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고, 연극으로 무대에 올린 흔적도 찾기 힘들어 그 가



연출가 백소연(극작가)씨가 공연을 마치고 단원들과 인사와 함께 관객들에게 직접 테마를 일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치가 새롭다며 또한 지역마다 다른 의미와 해석이 존재하나 더욱 지대한 관심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국의 막 오름은 정읍에 기록된 태인의 대각다리로부터 시작,

그곳은 현재 평택 속에서도 꽃피고 지혜롭게 영조를 키워낸 장본인인가

도 하다.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가 궁으로

들어갈 때 데리고 들어간 '사비'

이다. 1689년 기시황국의 여파로 인현

왕후가 폐서인 된 후, 숙종과 인연이 되어 영조를 탄생시킨 모후이기도 하다. 1718년 꽃피는 4월 숙빈 최씨가 운명할 때까지, 숙종의 정책 하나에 왕후에 오르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으로 자처된다. 그러나 정쟁의 흔한과 평박 속에서도 꽃피고 지혜롭게 영조를 키워낸 장본인인가 도 하다.

한 시대의 정쟁과 정책 속의 여

인들의 삶! 왕을 중심으로 한 파별

정쟁과 남친여비 사상과 정치적 앙상 앞에 무참히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연적' 간의 엇갈린 운명! 지난한 화경숙빈 최씨의 삶은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정쟁과 정책 속에서 견디고 지키며 끝내 이겨내야만 했던 '인고'의 시간이었다.

조선왕조 21대를 이은 영조(1724년)의 탕평책과 균법은 진흙 밭 연꽃 삶을 살아온 한 여인의 모대로부터 탄생시킨 고통의 분신은 아니었을까. 시대와 시대 속의 탄생은 예측 못한 또 다른 이파를 비극을 낳기도 하였지만 뿐리는 모국어와 같으므로 그 모든 흔적을 찾아 시대를 반추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뜻사립의 눈을 타지 않는 응송 깊은 곳에 자리한 구중궁궐 안의 여인들의 삶! 그것은 흘러간 시대의 상징이요 내외 음양의 정치적 계략의 또 다른 모양새이기도 하여서 21세기에 도래한 이 시대의 반성과 교훈의 지침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조선왕조의 일대기를 무대에 올려 연출하기란 쉽지 않았고 그 한계점에 맞닥뜨려져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무쪼록 문화적 가치를 헤아기는 이길 위의 시선이 좀 더 깊어지고, 섬세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연출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맛깔스럽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용품 전달



롯데아울렛 수완점

14일 롯데아울렛 수완점(점장 김재범) '사로데봉사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서구 용두동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광주시립의 집을 방문하여 겨울나기에 필요한 방한용품 오백만원 상당의 신발과 의류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 활동은 샤롯데봉사단이외 롯데아울렛 수완점에 입점되어 있는 협력업체 어디다스 매장과 타미힐피거매장의 임직원분들과 함께 동참 하여 기부문화 활동을 펼쳤다.

롯데아울렛 수완점 김재벌점장은 "이번 기부 활동은 수완점에 입점 되어 있는 협력업체 점주분들과 함께해서 더 뜻 깊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부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임현택 기자

무안군 삼향읍, 사랑의 밀반찬 나눔

경로당 56개소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3개소 등 전달



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삼향읍장, 삼향읍노인분회장,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등이 함께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40만원 상당의 밀반찬(율외김치, 김등)을 갖고 직접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종인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눔 행사를 개최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순천준법지원센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실시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층 강당에서 법시랑위원,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지금까지

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법시랑위원 전남동 부지역연합회 보호관찰위원회(위원장 양제승)에서 약 400만원 상당의 질입배우와 양념을 후원하여 이루어졌다.

지난 13년 동안 따뜻한 연말 나기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금까지 기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

자 425명에게 총 4,250kg의 김치를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14회를 맞아 법시랑위원과 순천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대상자 30명에게 각 10kg(300만 원 상당)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양제승 위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주시는 법시랑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돕기 위해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천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위원회와 연계하여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펼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세대와 관내 23개소 경로당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체영순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명희 면장은 "비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세대에 사랑과 정성 가득한 마음이 전해져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청년회의소, 이·취임식 쌀 기탁

영광군은 지난 15일 군청 군수실에서 영광청년회의소(회장 원봉성)와 쌀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지난 11월 영광청년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시 화환

대신 쌀 500kg(100만원 상당)을 기부 받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탁된 백미는 전남시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영광군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

달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존중할 줄 알고 실천하는 영광청년회의소 청년들의 열정을 담은 따뜻한 마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돋고 사랑하는 영광청년회의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3개 컨테이너터미널(SM 상선광양터미널, 한국국제터미널, C.I.대한통운터미널) 앞에서 회물차 운전자들에게 인천 운전을 독려하는 교통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승호 전남동 부처장

여수소방서,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간담회

여수소방서는 지난 13일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 관련 업무의 발전적 방안을 도출하고 부실 시공·점검 방지 등 겨울철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주 남부의용소방대, 사랑나눔 봉사활동

광주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연말을 맞이하여 14일 사직동, 봉선1동에 흘로 지내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쌀 나눔 및 사랑의 대화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은홍 기자

무안경찰, 로고젝터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무안경찰서(서장 정경재)는 무안군청과 협업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찾은 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생활상담 연구원 무료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개인, 주부, 가족폭력, 성, 청소년 고민 등(062-363-5599)

▲알코올상담 서비스 실시=인광알코올상담센터 무료 알코올상담=술로인해 고통받는 사람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222-566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061-721-1331)

▲월 연탄 100장 기증 회원·연탄배달 회원(연10회)=1년 내내 자동차에 후원자·전남 거주자, 광주장애인인사봉사회 연탄 100장으로 봉사 광주본부(522-8909)

▲영상과 브레이인 회원 모집=시

나리오(8mm) 스타터기그룹, 옵저버, 드리미(구성작가) 등 공동창작 활동 관심 있는 사람, 20~30대 응모 가능, 40대는 경력자

▲빛고을 한시랑 회원모집=영아원 및 지체장애인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경)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제주남전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회원입니다. 문의(062-374-5885, 010-2444-4500)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체무상담=많은 체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체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종합민요시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010-601-6989)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스포츠 웰트, 팝 062-531-1769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재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132, 1577-8339)

▲광주·전남 MC룸바 회원 모집=룸바 배우실 분(010-4624-8787)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체무상담=많은 체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체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종합민요시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010-601-6989)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체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스포츠 웰트, 팝 062-531-1769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회원입니다. 문의(062-374-5885, 010-2444-45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반 : 화·수요일, 중급반 :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062-267-3700)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스포츠 웰트, 팝 062-531-1769

안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단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노동상담소 (061-721-7363)한국노총 여수 상단소 (062-665-5293)
▲호남해바리기아동센터 시스템 무상제공= 13세 이동 및 젊은 지체 장애인